



농림축산식품부

동 정

농민을
대국정복
농민을
대한민국

2020년 4월 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 (044-201-2231), 사무관 이남윤(2236) / 제공일: 4월 7일(총 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 이재욱 차관, 무안군 양파·마늘 현장 방문

- 양파·마늘 작황 점검 및 수급 안정 등 현장 의견 청취 -

-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4월 7일(화) 전라남도 무안의 양파·마늘 주산지를 방문하여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, 생육상황 등 산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, 양파·마늘 의무자조금 가입을 독려하였다.
- 이 차관은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을 방문하여 양파·마늘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노은준 무안농협장 등 관내 농협장들과 향후 생육 및 수급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.
- 이 차관은 “양파는 재배면적 감소로 수급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되지만, 마늘의 경우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2% 많고 현재 작황이 매우 양호하여 생산량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487ha를 사전 면적 조절하는 등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였다.”고 밝혔다.
- 아울러, 마늘 줄기의 크기·굵기, 구 직경 등에 대한 실측, 작황점검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, 마늘 생산량 예측이 가능한 이달 말에는 정부 구매, 수출 등 ‘20년산 마늘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,
- 농협 등 관계자들에게 계약재배 물량에 추가하여 판로가 어려운 농가 보유분에 대한 구매를 실시하는 등 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산지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.
- 또한,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양파·마늘 의무자조금 추진과 관련하여 더 많은 농가의 자조금 가입을 위해 산지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부탁하였다.